

倫理問題의 새 吟味

現世代 휴머니즘의 本質 (2)

白鐵

文學者 個人을 두고 볼 때에 理性이 그 人間의 客觀的 頂點이라면 感情은 그 人間의 主觀的 頂點인데, 우리들은 平常 生活에 있어서도 이 兩端이 往往히 背離되는 境遇에 그 두 가지 對立을 統一하는 것이 意志라는 精神的 能力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今日과 가티 一般으로 理性과 感情的인 것이 背離된 運命을 가지고 잇는 時代에 잇서는 文學者 個人의 生活에 잇서도 恒常 그 두 가지가 分離되어 잇는 것인데, 이 때에도 그 兩者의 對立과 分離를 統一하는 것은 意志의 能力이다. 그리고 그것은 眞理에 對한 銳敏한 感覺에 依하여 意志化된 하나의 決意狀態다. 나는 그 決意는 가르쳐 漠然한 決意가 아니라 一種의 選擇作用이며, 選擇이되 그것은 理性과 感覺 中の 具一을 取하는 것이 아니라, 知的 判斷과 情的 意慾을 兼全한 統一이며 理想이 對象에 依한 決定이라 본다. 卽 對象에 대하여 自己 心中에 이러한 여러 가지 意見 가운데서 其一만을 取擇하여 『나는 이 길을 行한다.』는 明白한 方向으로서 自己를 嚴正히 修正하는 姿勢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意見 中에서 其一만을 擇하되 그 被選의 一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것은 惡에 대한 善이요 不義에 對한 正義요, 虛僞에 대한 眞實을 選擇하는 生的 活動이라는 것, 말하면 그 決意는 여러 가지 意見 中에서 最善, 最適의 것을 選擇하여 그 實現을 期하는 하나의 倫理世界다. 왜 그러나 하면 倫理란 意志가 決定한 善惡邪正의 判別을 그- 테마로 삼은 것이요 意志의 作用과 良心의 發展의 規範이며 體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시 知性的 再建 問題를 追求하여 意志的인 것을 가지고 決意하고 整理하고 統一한 世界로서 倫理의 世界에 到達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휴-머니즘의 文學的 表現을 하나의 倫理의 文學으로 보는 것은 다만 이 倫理를 휴-머니즘의 文學 우에만 設定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過去의 모든 文學 態度와 關聯시켜서 倫理의 世界에 托하여 그 過去를 回顧하는 立場에 處하고 십다.

나는 文學에 잇서 倫理란 文學이 文學 以外의 世界와 接近하는 데서 반듯이 通過해야 할 國境의 關門과 가티 생각된다. 가령 現代文學은 哲學思想과 關聯을 가지여야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現代의 文學 뿐이 아니라 文學은 그것이 大文學이요 大小說일사록 그 文學은 作家 自身の 커다란 思想의 完熟을 기다려서 可能한 것인즉, 여기서 그 哲學思想의 文學의 出現을 主張하는데 對하여 別로 反對할 理由가 업스려니와, 다만 哲學에 接近하는 데 잇서도 近年의 文學者가 唯物論哲學을 工夫하듯이 그 唯物論的 世界觀이 곧 文學의 內容 問題를 解決하는 것 가티 생각하는 態度여서는 不可할 줄 안다. 文學의 哲學이란 그것은 哲學 上의 觀念的 認識이 아니요, 一層 生命的인 生活의 산 理想이요 人生的인 決意의 것인즉, 그것은 단순한 哲學이 아니라 一種의 倫理的인 特殊한 哲學思想일 것이다.

若干 性質은 달너지나 現代文學은 政治와 關聯을 갖고 現實을 反한 것이여야 한다고 할 때에도 그 提唱이 文學的으로 意味를 가질 때에는 直接으로 政治的 테-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內容으로 하는 데서 現實을 把握하였다든 체스추어를 가질 것이 아니라, 文學者 自身の 主體的 情熱에 依한 倫理的 順應 或은 反逆을 通하여 嚴格한 自得的인 決意에 到達한 것을 意味한 것인데, 이 따에 잇서 倫理가 곧 政治를 意味한 것은 아니리라-. 그러기에 스펜서-가 『모랄은 政治的 生活이다.』라는 말을 한 것은 어떤 境遇의 어떤 意味인지는 모르되 一般的으로 正當한 至意이라고 볼 수는 업다. 文學者의 모랄은 直接으로 生活이기보다도 비록 天賦的은 아닐지언정 作家의 強烈한 體奧요 精神的 才能이요 特殊한 德이기 때문이다.

나가서 文學의 基準 問題를 反省해 볼 때에도 그것은 客觀的 現實이라든가 政治的 方向이라든가 또는 客觀的 眞理라든가 등의 『레디-메이드』와 가튼 것이 아니리라, 萬一 文學者에게 基準이 잇다면 그것은 自身の 全意力을 集束한 決意的인 生活의 規範-그 倫理的인 誠實性에 依託하는 길막게 잇을 道理가 업지 안을까?

그러기에 過去의 모든 우리 文學 問題 卽 文學과 政治, 文學과 現實, 文學과 思想, 文學의 基準問題, 나가서는 文學의 社會에 대한 影響, 作家와 讀者, 文學의 大衆化 問題 等 一切는 이 倫理라는 프리즘을 通하여 再屈折시키지 안으면 眞實하게 文學 上의 意味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倫理問題를 이와 가튼 地位에서 본 후에 우리들은 다음 文學의 倫理에 對하여 그것은 一般 社會의 倫理와 어떤 關係, 또한 어떤 特殊性을 가진 것인가를 解明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文學에 와서 倫理라면 그것은 基本的 意味에서 反逆의 德을 意味하

는 境遇가 大部分일 것이다. 가사로 文學者가 自己가 處해 잇는 그 社會의 道德에 對하여 別로 反逆할 理由를 發見할 수 업는 境遇에는 能히 그와 同等의 反逆을 自己 自身에 抗하여 敢行하는 境遇에만 그 文學者는 能히 自己의 品性을 살게 發展시킬 뿐이 아니라, 自己 文學을 眞實하게 開拓해 나갈 것이다. 本來에 잇서 文學者의 情熱은 既成的인 것과 既知 自明의 事實에 對하는 精神이다. 近代의 리아리즘 小說에 對하여 우리들이 一般的으로 不滿을 늦기는 것은 그것이 너무 既存的인 것에 追隨하는 데서 참된 리엘리티-이엇다. 現代에 와서 近代의 그리아리즘을 平面的이라는 것에서 非難하는 것도 그러한 素朴한 精神을 批判하는 意味가 아닐까? 여기서 『와일드』의 말을 引用하는 것은 리아리즘을 批判하는 데 너무 便宜한 手段인지 모르나 그의 말에 『藝術은 模倣이 끝난 곳에 시작된다!』는 것은 近代 리아리즘의 素朴性에 比하여 훨씬 越等한 文學精神이라고 생각된다.